

## 섬유업계에서 들려오는 토막소식들 <16>

“ ” 가 ?

일본의 과거 한 때 관민일체(官民一體)가 되어 일본 고유의 경영방식으로 유사 이래 처음의 호황을 누리던 “일본주식회사”는 구미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경제산업성의 제조산업국장은 “일본주식회사”가 고도경제성장기에 정부와 기업이 긴밀하게 호흡을 잘 맞춤으로써 고도성장이 가능하였다는 평이 있었으나 일부에서는 “관민(官民)의 유착”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설도 있었다.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간에, 지금은 다시 관민이 하나가 되어 경제를 바로 발전시켜야 할 때이다. 올림픽에 비유하자면, 일본내 시장에서의 경쟁은 예선이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은 결승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세계시장에서 1등을 하기 위한 정책을 기업과 함께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외수요 획득과 경제회복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향해 관민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시사하였다.

섬유시장에서 따스한 기능을 갖고 있는 이너웨어가 잘 팔리는 추세가 멈추지 않는다. 상사의 OEM담당자 말을 들어보면 지난 추/동 시즌에 일본내 전체 생산량이 약 2억 5천만 매까지 늘어났다는 설이 있다.

실제로 유니클로의 판매장에서는 “히트 테크(heat tech)”가 큰 스페이스를 차지하고 GMS(general merchandise store : 주로 식품 이외의 일용품이 많이 파는 대형상점) 등에서도 “이너 웨어” 3장이 수백 엔에 팔리고 있던 면 100%의 흰색 내의의 판매장이 좁아질 정도로, 기능성 이너가 판매장에서 주력으로 되어 있다. 디플레이션(deflation) 속에서 폐색된 것 같이 보이는 의류품 시장에서도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져, 대규모로 상품을 바꿔놓고 있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德川幕附)”와 “메이지 유신(明治維新)”의 “개화 과도기”에 이름

난 공로자 중의 한사람인 “다카스기 신사쿠”는 폐결핵으로 27살에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시구로 “흥미로운 일도 없는 세상일지라도 흥미롭게”라고 시의 앞구를 부르고 사망하였는데 간병하고 있던 비구는 시구의 앞구(前句)를 받아 “살며 하는 것은 마음에 달려 있네”라고 뒷구로 받아 주듯, 마음먹기 하나로, 흥미롭지 않은 세상을 흥미롭게 바꿀 수도 있다.

“흥미로운 일도 없는 세상일지라도 흥미롭게 살아가는 것은 마음에 달려 있네”

일본의 “곳가” 사(社)의 사장은 중국의 대련에 봉제공장을 갖고 있는데, 수년전에 공장의 노동력 문제를 질문하였을 때는 “상하이 근처에서는 구정이 끝나면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많은 모양인데, 대련에서는 그런 일이 아직은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하였다. 그동안 세월이 흘러 “2010년에는 2~3번 급료를 올려주었는데도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고 하며, 대련에서도 사람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되었다. 우리 공장에서는 “재봉틀도 있고, 일할 주문도 받아놓고 있는데, 사람이 없다.”는 상황을 한탄하고 있다. 중국의 노동력 문제는 인구수는 대단히 많으나 국민성이나 정치이념, 평준화 등 많은 문제가 얽혀 있어 예상롭지 않을 것 같다.

“ ” “ ”

일본의 쿠라레는 일본의 국산기술로 세계에서 최초로 공업화된 일본산 합성섬유 비닐론이 일본 과학기술발전을 나타내는 자료로써 국립과학박물관의 중요과학기술자 자료에 등록되면서 2010년 10월 6일 등록증 수여식이 있었다.

비닐론은 폴리비닐 알코올(PVA :polyvinyl alcohol)을 원료로 한 합성섬유이며, 교토대학의 “사쿠라타” 교수들에 의하여 1939년에 개발되어, 당시 “합성 1호”라고 불렸다. 일본에서의 합성섬유 제1호로써 1950년 11월에 “쿠라레”의 “오카야마”공장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공업화에 성공하였으며, 2010년으로써 60주년을 맞고 있다. 합성섬유 중에서도 표준상태에서 수분율이 3~5%로 가장 친수성이 높으며, 고강력으로 내후성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알칼리나 산에 강한 것이 특징이다.

당초에는 면의 대체로서 면이나 마의 대신으로 의류, 어망, 범포, 로프 등으로 사용되었



이번에 면사 시세가 크게 오른 것은, 원료인 면화가 크게 오른 것이 요인이다. 뉴욕 면화시세는 1파운드 1달러가 넘는 수준으로 오르고 있으며, 이것이 면사 가격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면화는 연초부터 계속 값이 오르고 있어 방적도 적극적으로 원면을 잡을 수가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더욱 비싼 값으로 잡지 않을 수가 없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는 견해가 크다. 그래서 채산이 나빠지고 있으며, 일본내 방적도 강한 기세로 실 값을 인상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모양이다.

다만 수요처인 제직업체에게는 면사가격이 크게 오른 것이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예를 들면 정번수 시판사의 사용량이 많은 타월산지에서는 “직기를 세울 수는 없으므로, 힘 있는 메이커는 비싼 실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다. 생산과 동시 병행으로 거래선과 출하 가격을 올리는 것을 교섭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힘이 없는 메이커는 직기를 세우지 않을 수가 없다.”고 원사 상인은 말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에 면사가 높게 오른데 따라, 채산이 안 맞는 주문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으며, 산지의 생산 전체에 찬물을 끼얹는 상태이다.

그래서 산지에서는 “당치 않은 시세가 되었다. 현재와 같은 불경기에서의 면사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산지 기업에게는 그야말로 폐업권고 가격이 된다.”는 비통한 소리도 커지고 있다. 상사측에 의하면 “면사가격은 앞으로도 값을 내릴만한 재료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